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춤추는 **일심**

web.yonsei.ac.kr/ysfem
woolim@yonsei.ac.kr

춤추는 **일심**

2009 1호



거학생으로 살아남기 나는 명예남생이었다 / '오빠' 왕 사귀기
들여본 /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살아
남파길 이기를 기대 받는 일반생으로 살기 / 똘이력기 좋은 병
질 걸렸다는 생각? / 똘이력기 사들이다 / 학생회 생목욕
으로 '피곤' 하다 / 연세대학교의 여성장제를 찾아서 / 즐거움의
감정인 선수, 참 좋다. 고와, 아앗! 참 불편하구나 / 영화, 영화
의, 작은 봄 속에 〈일상, 울림〉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춤추는 일상

CONTENTS

02 여학생으로 살아남기 - 굳어져 있는 일상을 뒤흔들며 유쾌하게

여학생으로 살아남기

05 명예남생으로 살아남기 - 나는 명예남생이었다, 아니 지금도 때에 따라선 명예남생이 되고 한다

09 여동생으로 살아남기 - '오빠' 칭 사귀기 정말 힘들어!!

13 여성주의자로 살아남기 - 지금 아내로가 좋아요?

16 어느 한 '여학생'의 마음 속 캠퍼스 지도 18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살아가지

21 레미네리 책 읽고 서명 쓰자

22 알바생으로 살아남기 - 할파할 아기를 가대 받는 알바생으로 살기

24 어느 한 '여학생'의 '잠 쉬든' 대학생할

뜯어먹기 좋은 빵

27 언제 오길 잘했다는 생각? 등골이 서늘하디이다 31 학생회, 성폭력을 묵인하기로 '와결' 하다

37 연세대학교의 여성정책을 찾아서 40 지기 놓으신 분들크의 양언 작별

즐거움의 재구성

41 김연아 선수, 참 골다, 고와 아릿 참 불편하구나

48 영화, 영화, 같이 보자, 제!!

봄 속에 <일상, 올림>

50 부자반한 총여학생회 52 소모임 네트워크를 그려가면서

54 에코페미니즘 운동함에 함께 해오! 56 총여학생회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여학생으로 살아남기

그래요, 어떤 이에게는 당연하게 흘러가는 일상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살아남기'를 고민해야 하는 일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학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편함들을 내 안으로 꼭꼭 눌러담으면서, 건디는 밥을 배우고, 옷어 넘기는 기술이 늘어나면 조금은 살만해 질까요?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압니다.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에서 침묵 할수록, 더욱 더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한 침묵은 더욱 이 불편함을 단단하게 만들겠지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침묵하지 않고 그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겠지요.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저냥 흘러만 가던 것들을 그냥저냥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 들춰내는 거죠. 무엇이 이런 뒤떨린 상황을 자연스럽게 여기도록 만드는지, 우리가 일상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어떤 권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촉각을 세우고 성찰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성주의가 끊임없이 내놓는 힘이겠지요.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던 수많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 말이에요. 여성주의는 너무 자연스러워 말하기 새삼스럽다는 그 일상이 사실은 수많은 관계들로 얽혀있고, 그 관계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권력'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면, 강의실에서 어느 남성교수가 여성비하적인 발언, 성폭력적인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속에는, 그가 학생-교수라는 관계에서 교수라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남성-여성이라는 관계에서 남성이라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폭력적인 농담에 어떤 사람이 웃는다면, 그 역시 그가 가진 권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성비하적인 농담에 웃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농담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같은 권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일상을 옥죄고 있는 권력관계들을 드러내고, 그 관계들을 전복시키는 것, 그것이 여성주의일 테지요.

그렇게 일상을 들춰내는 일은, 지레 겁먹듯 우울하고, 지남하기만 한 것은 아니예요. 그 단단하게만 보이던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고는, 그 갈라진 틈을 비집고 들어가 결국엔 그 일상의 권력관계를 전복시키는 일은, 제가 아는 한 가장 멋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으로 '살아남기'를 고민한다는 것은, 단지 살아남는 것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 관계들을 유쾌하게 전복시키는 것일 거예요. 그런, 우리 일상을 전복시키며 유쾌하게 '살아남기'를 시작해볼까요?

명예남성으로 살아남기

나는 명예남성이었다

아니 지금도 때에 따라선
명예남성이 되곤 한다



명예남성, 그녀는 누구인가?

명예남성은 남성중심적인 과, 반, 동아리에 서식하는 여학생이다. 먹이사슬에서 보자면 '아빠'보다는 상부에 위치해있지만, '오빠'들보다는 한참 아래쪽에 위치해있다. 이들이 표방하는 남성성은 모방을 통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남성성이다. 즉, 대학 공동체의 주도적 남성성, 가부장적이고 군사주의적인 공동체문화를 선도하는 남성성을 모방하는 여학생이 바로 명예남성이다.

명예남성은 구체적인 행동양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이 공동체내부의 다른 성원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첫째로 행동양식에 있어서 명예남성은 남성적인 언어와 제스처를 얼마나 잘 모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진다. FM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조금 조금 말하도록 사회화되었던 역사는 숨긴 채, 누구보다 우렁차게 고함을 지르면 100점이다. 혹시 다른 이에게 FM을 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20점 정도가 추가된다. 용원을 하는 때라면,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조차 용납되지 못했던 역사를 숨기고, 팔 다리를 확확 뻗어서 다른 남학생들과 어깨동무까지 전하게 할 수 있다면 100점이다. '아-연세!'로 시작되는 선창을 할 수 있다면 역시 추가점수가 부여된다. 둘째로 관계 맺기에 있어서 명예남성은 과반의 주류 남학생 그룹에 끼어둘 수 있

● 바웃사이드의 졸업생, 거부장전, 이성애중심성, 비성애중심성으로 정찰된 과, 반, 동아리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인 삶을 개척한 사람을 일컫는다.

는 영광을 누린다. 다른 남학생들은 명예남성에게 '남자끼리데 뭐 어때?'라며 음담패설을 공유하는 특권을 주기도 하고, '너는 얼굴이 무기니까 늦게까지 다녀도 괜찮지?'라며 밤늦은 술자리에 친히 불러주기도 한다. 명예남성은 낭만적인 대학문화의 꽃, 남성끼리의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여학생인 것이다.

이러한 명예남성은 과, 반, 동아리에 어떻게든 발붙이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탄생한 인간형이다. 가장장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공동체에서 여학생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두 가지 있다. 남학생들의 연애대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며 수동적이며 순종적인 '여자'가 되는 것과 남학생이라는 말을 썼으므로 과반활동에 주도적이어도 용인되는 '남자'가 되는 것. 명예남성은 이 중 후자를 택함으로써 일견 '권력의 꼭대기'에 위치한 것처럼 보인다.

남성이 되어버린 자의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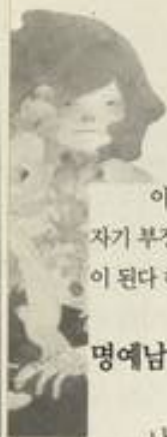
명예남성은 혼란스럽다. 남성과 즐겁게 어울리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가리고 때때로 자신을 죽여야 할 때도 있다. 한 무리의 남학생과 명예남성이 밤새워 술을 마셨을 때, 그녀는 같이 놀았던 친구들과는 달리 주변의 질타와 주위 사람들의 험담- '걔 너무 나댄다~아.'는 동의-을 견뎌야 한다. 행여나 그 중 한 남학생의 자취방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면, 공동체 내 뜬소문의 대상으로 의심받는 것도 그녀다. 명예남성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과 갈등을 일으킬 때, 언제나 욕먹는 것은 그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공동체나 사회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걸 행하는 그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불편함을 느낀다 해도 그녀는 자신의 불편함을 말할 수 없다. 명예남성은 모든 남성중심적 문화를 즐기고 최대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만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MT를 가도 여학생과 남학생의 공간분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남학생과 혼숙을 하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남학생들이 행하는 스킨쉽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사나이'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자'기 때문에 성폭력의 가능성을 운운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그녀는 술을 강권하는 남자선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남자인데다 선배인 '형님'이 주는 술은 곧 의리의 술이며, '형님'의 술문화에 능수

능란하게 적응해야만 진짜 '사나이'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월경을 해서도 안 된다. 어쩌다 그녀가 짜증이라도 낼라치면, 한 남학생은 '너 혹시 그날이나?'고 놀리고 다른 남학생들은 박장대소를 한다. 명예남성의 월경은 회화화되기 일쑤라, 그녀는 생리통이 심해 집에 가서 쉬고 싶어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생리통을 완벽하게 숨기고 '월경을 하지 않는 강인한 남성의 몸'을 모방해야만 저들과 같은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예남성은 자신의 역사와 경험,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모두 부정함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는 고통스러운 지위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잃으면 한 순간에 '여성'이 되어버리는 것이 또한 명예남성이다. 명예란 한순간에 사라질 구름 같은 것 일뿐, 막이사술의 최상부를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그들은 명예남성이 그녀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남학생들은 걸은 인심 좋게 남성연대에 그녀를 끼워주는 척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명예남성은 결코 주도자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중심인물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술자리-파씨방-플쓰방으로 이어지는 놀이의 방식이나 음담패설과 같은 대화의 주제가 그녀의 등장으로 바뀌는 법은 없다. 게다가 남학생들은 걸은 명예남성을 '동료'라며 치켜세우지만, 결국은 그녀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요구한다.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넘버러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남학생뿐일지니, 그 남학생들을 토닥이고, 숙취해소음료를 사 먹이고, 다음날 해장국까지 일흔하게 챙겨 먹여야 하는 것은 명예남성들이다. 거기에 더해 명예남성은 과/반 공동체의 '대모'가 되기도 한다. 3월말 즈음, 과/반에 패거리가 갈리고, 신입생의 1/3정도가 '아싸'로 돌아서게 되면 남자선배들은 갑자기 명예남성을 과/반의 구원자로 치켜세우기 시작한다. 그동안 과/반에서 눈에 띄는 활동은 자신들이 독식해왔으면서, 유독 이런 일에만 아무래도 나쁘다는 여자인 네가 나서서 게 낫지 않겠냐는 압박을 넣는다. 과/반의 수많은 (때로는 서로를 배척하는) 패거리들을 뿔뿔이 자리로 불러 모으는 역할, '아싸'들을 다시 반 활동에 오라고 설득하는 역할, 그 과정에서 연락하고 공감하고 끈질기게 대화하는 수고를 모두 그녀가 도맡게 되는 것이다. '여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회화화되었던 명예남성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여자가'기 때문에 과/반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감정노동을 감내해야만 한다. 이처럼 그녀들은 중요한 순간이 되면 언제나 '여성'으로 치환되고 손쉽게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





아, 명예남성되기는 여학생에게 고통스럽고도 불안정한 길이다. 그녀들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어쩔 수 없는 침묵 속에서만 명예남성이 될 수 있으며, 설사 명망있는 명예남성이 된다 해도 그 가면은 너무나 쉽게 발가벗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명예남성으로 사라지기

나는 명예남성이 되고선 드디어 '발언권'을 얻게 된 것 같이 득의양양했더랬다. 과반, 동아리를 주도해가는 남자선배와 남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함께 여학생들의 외모를 순위매기며 '온밀한 비밀'을 공유했다. 그네들의 연애사를 듣고 함께 '어장관리'하는 여학생'을 욕하며 생긴 '의리'가 있었다. 그러나 명예남성 행색을 할수록 점점 목이 턱, 막혀왔다. 명예남성의 가면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나를 죽이고, 나의 경험을 숨기고 나니 남은 것은 미소를 가장한 침묵뿐이었다.

명예남성으로 <살아남기>란 없다. 명예남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숨이 막혀, 조용히 <사라지기>만 있을 뿐이다. 여학생으로 사회화된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명예남성의 자격들을 채우기도 힘들뿐더러, 어떻게 명예남성이 된다 하더라도 곧 그 가면은 누군가에 의해 벗겨져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명예남성이 되기를 선택한 여학생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고, 명예남성이던 시절의 나를 자책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그녀가 가면놀이를 끝내고, 가면 속에서 혼자 우는 것도 끝내고, 맨얼굴을 드러내고 말갭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by ... ♡ 파니

●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장관리'라는 것의 내용은 가관이었다. 학년이 높은 데다 남자이기까지한 선배가 '밥 먹지는데, 도시관에 저러 떨어보오니 오라'는대 세상에 어떤 당찬 선배가 여학생이 '난 당신처럼 연애할 생각 추호도 없는데요'라며 거절할 수 있었는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여학생을 동여매놓을 수 있는 그들의 권력 + 연애라는 (지) 땅대로 설정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꼭 얼굴을 바꾸어 그녀를 '어장관리'라는 최후의 매장해버릴 수 있는 그들의 권력. 그렇게 돌아서는 남성중심적 권력 속에서, 어장관리나도, 명예남성도 사실은 어떤 여학생들도 공동체에서 살아남기만 억수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동생으로 살아남기

'오빠'랑 사귀기 정말 힘들어!!!



연애라나, 그것도 '오빠'와의. 떠오르는 기억들이 견잡을 수 없도록 쏟아져 나온다. 내 이야기, 내 친구 이야기, 내 친구의 친구 이야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걸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막막할 정도다. 그 때 그, 연애 초창기의 상콤하고 사방한 시기를 넘어서면 오빠와의 연애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진짜 피부의 숨구멍 하나하나로 확인하게 된다(적어도 나의 경우는 그랬다). '연애라서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힘들고...'라는 고만을 하다 하다 지쳐서 슬쩍 친구들에게 말을 꺼내면 어쩐 그리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지 믿기가 어렵다. 그 얘기들, 다는 아니겠지만 꼭 풀어내고 싶다.

"야, 철수랑 영희랑 사귀대!"

사람들의 시선은 참 무섭다. 한 번 철수(남성) 영희(여성) 연애를 한다고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영희(여성)는 그대로 '철수(남성)의 여자친구'로 회자된다. 어느 이성연애관계에서나 비슷한 시선을 받기 마련인데, 특히 오빠-여동생 사이의 연애관계에서는 그 게 심하다. 같은 공동체에서 각자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 영희의 정체성은 '귀엽고 공동체 활동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여자후배'에서 '공동체 활동 열심히 하는 형의 나이 어린 여자친구'로 바뀌어 명명된다. 그리고 그 때부터 영희는 때로 은근히, 때로 대놓고 공동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 편의상 오빠-여동생 사이의 관계를 철수-영희로 표현한다. 각자 이성연애에 있어서 맥락은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오빠와의 연애'라는 대에서 오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에서 권장되는' 남학생-여학생의 상을 통해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길 바라노라.
● 이 때 연애관계는 거의 항상 '철수(남성)가 영희(여성)와 사귀다'의 방식으로 서술된다.
● 이 사회,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관계맺음이 남성중심적이라 보니까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건 여학생들에게 위기에 여러모로 '괴재'인 것도 물론 사실이다.

피어나는 공간,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춤추는 **일심**

web.yonsei.ac.kr/ysstem
woolim@yonsei.ac.kr

춤추는 **일심**
2009 1호



대학생으로 살아남기 나는 '영애'였었다 / 오빠 형 사귀기
들어온 /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살아
남아갈 이기를 기대 받는 일반생으로 살기 / 좋아하는 좋은 형
있어! 라는 생각? 동물이 서늘하더라 / 학생회 심복력을
으로 '여걸' 하다 / 연세대학교의 이상정체를 찾아서 / 즐거움의
공간이 선수. 참 좋다. 고와. 어맛 참 좋구나 / 영화, 영화
는. 저. 볼. 속에 <일상, 울림>

피어나는 공간,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살갑게 좀 해봐, ‘오빠’라고도 불러보고.”

이렇게 날 ‘챙기고’ 내게 ‘잘해주는 남자친구’에게 나는 또 그만큼 해야 하는 역할이 생긴다. 보호해준다는데,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게 있는 법이다. ‘오빠’ 친구들 앞에서든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예뻐 보여야 한다. 편하지도 않은 옷과 구두를 챙겨서 몸에 걸치고, 할 줄도 모르는 화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그러고선 찾아가는 ‘남자친구’의 (남자)친구들만 오고북히 모여있는 술자리.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먼저 말을 꺼내기에는 뭔가 ‘암전’해보이지 않고, 그렇게 나는 꾀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을 수밖에. 다음 날이면 그런 소리를 들었다. ‘옷 좀 예쁘게 입고 오지 그랬어. 와서는 예고도 멀고 예쁜 것 좀 하지 그랬어.’ ‘오빠’의 친구들 앞에서 나는 ‘오빠’의 위신을 높여주는 ‘명품시계’ 같은 장신구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도 계속됐다. ‘오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먼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해야 하고, 지금 ‘오빠’의 기분은 어떻게 늘 고민하고 상상하고 거기에 맞춰주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선 외모의 느낌도 잘 살려야 했다. 귀여운 걸 원하면 귀여운 대로, ‘성숙’한 걸 원하면 ‘성숙’한 대로, 털털한 걸 원하는 적은 거의 없었지만 털털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여기까지 이야기되었던 그 어느 것 - 공동체에서 내가 밀려나던 경험, ‘보호’받으며 느꼈던 이상한 억눌린 감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살펴야 했던 내 노력 - 예초차 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얘기를 꺼낼라치면, 슬금슬금 치밀어오르는 화가 ‘오빠’의 눈에 보일라치면, ‘오빠’는 단 한마디로 내 모든 언어를 차단했다. ‘넌 여자애가, 뭐 그렇게 재미가 없냐?’ 이 말만큼, 나는 장난도 농담도 모르는 ‘딱 딱하고 융통성 없는 여자’라는 것이었다.

참 힘들었다. ‘오빠와의 연애’는 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나도 그랬고, 내 친구도 그랬고, 내 친구의 친구도 그랬다. ‘오빠’라고 명명할 수 있었던 내 전 애인도 단 한 명은 아니고 몇 명 된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오빠’들은 천편일률적일 수 있는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놀란다. 안 그래도 이성연애관계 속에서 성별권력관계가 존재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나이권력과 결합하니... 경험 많은 남자, ‘자기 여자’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해줄 수 있는 남자로 행세하는 사람 옆에서 순진한 ‘여자친구’ 역할을 수행하기는 정말 힘들다. 힘들어.

by 여기까지 쓰다보니 낙다운 루

여성주의자로 살아남기

지금 이대로그
좋아요?



www.nataliedoe.com

그러니까, 나는 대학에 오면 뭐든지 끝낼 해내고 누구와도 얼굴 붙일 일 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다. 오직 모의고사 점수에만 목매던 수험 생활을 끝내고 나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진짜’ 자유가 주어질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만나게 된 대학의 공동체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득그득했다. 큰 목소리나 몸짓을 배워본 적 없는 나에게 FM이나 응원은 ‘누군가가 하면 재밌게 구경 할 수 있지만 내가 잘 해낼 수는 없는 것’이었다. 밤새 이어지는 술자리와 탕구장과 PC방의 루트는 ‘집에서 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실제로 ‘위험한’ 밤길을 생각하면 내게는 걸 틈조차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것’이었다. 이렇게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의해 배제되고 있는 같은 공동체의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공동체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너 혼자 왜 흥분하고 그래?”

하지만 내 문제의식을 입 밖에 꺼낼 때면 나는 늘 ‘깜담’이 되어있었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곤 했다. 언젠가는 번에 걸속을 도모하려는 ‘친구’가 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솔직히 예쁜 여자애들한테 관심 더 가고 더 챙기게 되는 건 맞다. 그건 미안하지만, 우리반 여자애들 너무 안 논다. 밤도 좀 같이 새고 그래야 의리가 생기지. 같이 잘 놀자.’ 처음엔 차마 이름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익명게시판에 이 글이 매우 불편하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내게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다같이 잘 놀면 좋은 거 아니냐', '왜 혼자 그렇게 흥분하나', '왜 이름도 안 밝히냐' 라는 댓글이 더 많이 달려서 직잡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다음날 나는 댓글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내가 바로 그 문제의 글을 썼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건설적인 논의'는 잘 진행되지 못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나서 남는 '주류'의 그들에게 매일매일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밤을 같이 새지 않는 사람들은 불만만 많은 부엌이일 뿐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내가 얘기했던 것은 단지 그 수많은 불만 중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지, 배제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성찰은 아니었던 것이다.

“대안 문화를 내놓아라. 아님 너는 왜 굳이 말을 꺼내는데?”

그 사건 이후에 나는 깨달은 바가 있었다. 공동체에서의 무엇이 누구를 왜 배제했는지 묻기보다 '그 개인은 왜 "아싸"가 되기를(공동체 생활을 안 하기를) 선택했나'를 묻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문화 속에서 기존에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결의가 필요했다. 단순히 밤새 계속되는 술자리도, 끊임없이 여학생들을 평가하는 시선도 불편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밤새 계속되는 술자리는 이런이런 이유에서 누군가에게 불편하다', '여학생을 대상화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저런저런 식으로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경리를 해야만 끝낼 수 있다는 '척'이라도 받아낼 수 있었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도 조금이나마 말꼬리 잡힐 여지가 있으면 내 논리는 엉터리로 판명 났다.

하지만 또 얘기가 된다 싶을 때 공동체적으로다가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아마 그들에게는 '궁지에 몰렸다'고 느껴졌을 듯하다) 필살기를 쓰더라. '그래, 그럴 이진 불편하지.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이제 아니면 뭘 하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게? 여기에조차 반듯한 '정답'을 내놓지 못하면 나는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 받았다. 문제제기도, 대안도 모두 이야기를 꺼낸 나의 몫이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공동체에서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했지만, 그들이 물어보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대답할 수 없으면 나는 얘기를 꺼내느니만 못한, 공동체를 분열시킨 배신자로 여겨졌다.

“너는 그런 얘기하는 애가 무슨...”

어떤 공동체에서였건,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있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 끝끝내 싸워내는 모습을 본 후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하다. 내가 하는 말들은 모두

내가 지지를 정도로 항상 하는 얘기가 되어서, 내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 때부터는 내 일거수일투족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 내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건 내가 평소엔 주장하는 여성주의와 어떻게 상충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성찰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뒷담화'로 이용된다. 하지만 나 역시도 어느 공동체의 그 누구와도 마찰가지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가 충분히 성찰하지 못한 지점이 있다면 더욱 더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이 나의 고만들을, 나의 존재를 공동체에서 '폐기처분'해버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떠올기도 하는데, 반성폭력을 이야기하는 애가 감히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는 식의 일들에조차 관심이 쏠리기도 한다. '성적 대상화에 반대한다면 너는 왜 그렇게 성적으로 대상화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나?'라는 게 그들의 논리인 것 같은데, 그게 참, 그렇다. 자신이 누군가를 성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다는 것에는 어떠한 권력이 존재하는 것인지, 왜 주로 남성이 여성을 대상화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를 그들은 묻지 않는다. 짧은 치마를 입고 있음으로 해서 반성폭력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그 권력, 그리고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피해를 고민하지 않은 채 그들은 그냥 '실은 소리하는 사람'을 공격할 뿐이다.



오늘도 내가 몸담았던 어느 공동체에서인가 신입생을 맞이하여 환영회가 진행 중이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곳에서는 FM이며 사발식이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지. '힘들면 안 해도 돼', '웃 마시겠으면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셔', '강권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네가 대안을 얘기해보든가.' 그러고 나서 다음날이 되면 그 누군가가 압주거리로 술상에 올라올 테다. '개,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는 친구들이랑은 술도 먹고 고래고래 소리도 치고 그러더라. 뭐 애가 그러냐? 아, 여성주의자로 살기는 힘들다. 사람들은 여성주의자들에게 끊임없이 완벽하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실만을 보이도록 요구하고, 그걸 할 수 없는 개인에게 비난을 쏟아낸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찰해나가면서 현실을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자신이 선 위치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 어떻게 배제를 없애나갈지를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

by 익선동은 정말 그만 루

어느 한 '여학생'의 마음 속 캠퍼스 지도

서문

이 문으로 나가면 복잡하고 좁은 골목길들이 나온다. 어두워지면 노상방노를 한다가나, 자위를 한다가나 하는 반대남성들이 출몰한다. 자취하는 여학생에게 서문의 골목길은 공포스럽다. 밤길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올까?

농구코트

언제나 남자들만 득실거리는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진다. 농구코트가 남성들의 전유물인가. '여자들은 농구 안 하잖아'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어쩌서 여성들이 자연스레 농구를 안 하게 되었는지, 혹은 못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도서관

그 악명 높은 누드엘리베이터가 있던 곳이다. 다행히 지금은 불투명처리 되었지만,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투명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를 둔자하니 계단 칸 사이가 풀려 있는 건물도 있다더라.

학생회관

학생회관 2층에는 성희롱 성폭력 상담센터가 있다. 성폭력 상담센터는 "성폭력 신고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 의료, 법률분야에 대한 지원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진 곳이다. 학생회관 3층에는 총여학생회실이 있다!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일상, 올림>은, 여학생으로 살면서 말하기 어려웠던 경험과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총여학생회실 안에는 여성학 도서들을 보고, 빌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학 자치 도서관 <페미니리드>도 있다!

강의실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교수가 성폭력적인 발언을 할삼기도 한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로 그럴까 싶다. 농담인 마냥 언어성폭력을 저지르는 교수들과, 거기에 동조하면서 함께 웃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도저히 웃고 있을 수 없다.

기숙사 가는길

마침가지로 어두운 길은 공포스럽다.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괴담 아닌 괴담'의 무대다. 어쩌서 캠퍼스 내를 걱정없이 편하게 다니는 일이 요원하기만 한지.

청송대

수풀이 우거지고 어두운 청송대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나무를 많이 베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집에서, 골목에서도, 공원에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모든 곳에서 성폭력의 위험을 건디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새터

새내기 때, 마냥 즐거울 것이라고 상상하며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하지만 남만은 고사하고, 공간 분리도 되어 있지 않아 편히 쉴 방도 없었고, 성적인 스킨십이 빈번한 계임을 해야했던 경험도 있다. 성폭력 사건들도 많이 일어난다.

논지방

여성 동문들의 기금으로 마련된 논지방은 여학생 휴게실도 있고, 공간도 빌릴 수 있고, 수유실도 있는, 여학생으로서 편히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학교 당국에서는 논지방을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며 계속 넘보고 있다.

대강당 앞

대강당 앞에서는 학생들(대부분, 99.9% 남학생이) 항상 축구, 야구, 축구, 심지어 농구, 럭비까지 한다. 상당히 위협적이다. 특히 야구가 유행하자 야구공 던지기를 넘어서 방망이까지 등장하기도 하였다.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 단단한 공은 상당히 공포스럽다. 공놀이를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 물개가 생각나기도 한다.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살아가기.

나의 자취 생활은 한국에서 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동네에서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사실 친척집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완전히 독립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엄격히 통금 시간이 정해져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척들과 함께 살다보니 어느 정도는 자유가 제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불안함보다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설렘이 더 컸다.

그런데 그 설렘은 이사를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밤을 보내면서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것들, 이를테면 문단속은 제대로 했는지, 누가 방문을 따거나 창문을 깨고 이 방에 침입하지는 않을지, 그런 것들이 잠을 청하려고 누운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머릿속을 뱅도는 것이다. 여자 혼자 사는 방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을 다뤘던 많은 기사들이 떠오르면서 누군가 침입한다면 내가 과연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애써 별 일 없을 거라고 위안하며 겨우 잠을 청했지만, 그날 이후로 불안감이 마음 한 편에 웅크리고 있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다. 방이 1층에 있고, 창문에 창살도 없어서 누군가 걱정하고 침입하려 들면 비교적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것도 불안했지만 그것만큼이나 나는 내 몸을 움직여 누군가에게 대항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연습한 적도 없기에 누군가 침입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과 두려움도 컸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에서도 공포는 계속 나를 뒤따라왔다. 집 가까이에 있는 좁은 골목길은 가로등도 별로 없고 길도 좁아서 어쩌다 사람 그림자라도 나타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내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절로 발걸음이 빨라졌다. 음악을 들으면서 걷다가도 내 뒤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어폰을 귀에서 뺀 적도 한 두 번

이 아니었다. 예전에 들었던 무수히 많은 괴담들과 미디어가 심어준 늦은 밤길에 대한 공포, 실제로 하루에 몇 차례씩이나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사건, 성폭력 사건들에 의해 각인된 '위험한 밤길'의 이미지가 나에게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쳐대고 있었다.

실제로 매우 사적인 공간과 시간마저 위협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여/남이 사는 층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곳이라 내부는 비교적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다. 같은 층에 사는 친한 언니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나는 한동안 또 패닉에 빠져야만 했다. 원룸이 아닌 고시원구조라서 복도 밖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공용으로 쓰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샤워하고 있는 문 앞에서 남자 한 명이 그 앞에 계속 서 있었다는 거다. 그걸 또 다른 여자가 발견하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해서 다행히 그 남자가 그냥 가 버린 것만이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참... 그렇다, 누군가 샤워실 앞에 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었다. 그 남자가 단순한 변태인지, 스토킹인지, 아니면 실제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단지 거기에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위협의 가능성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 사건은 층 분리 같은 임시적인 조치는 결코 안전을 위한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 성폭력이 만연해있는 사회 속에서는 어디서든 나를 훑쳐보는, 위협이 되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구구절절 자취하면서 느꼈던 공포와 불안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매일 매일 공포와 불안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생활에 적응이 되자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날도 늘어났고, 혼자 사는 생활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내가 생활하는 시간과 공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독립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었다. 새벽녘에 느즈막히 잠을 청하면서, 통금 시간에 꽃기듯 들어와야 했던 때와는 다른 여유로운 기분을 느끼기도 했고, 하지만 독립 생활에 적응했다고 해서 내가 불안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일상적인 불안과 긴장, 두려움이 몸 자체에 각인되어서,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을 하곤 했다. 나는 모든 상황에 안심한 것이 아니라, 다만 불안에 익숙해졌던 것이다.

부모님과, 친척과 함께 살 때는 그 때 나름대로 나를 화내고 초조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적어도 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두려움은 아니었다.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걸 기꺼이 환영했었지만 혼자 살면서 지금껏 나의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생각보다 컸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다. 이놈의 땅에서 살아가는 나는 집단의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 누구나 언제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한 여자에게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해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우울한 깨달음인 동시에, 앞으로 내가 맞서 싸워나갈 깨달음이기도 하다. 나는





자유롭게, 그리고 동시에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 공포를 재생산함으로써 여성의 활동 범위를 끊임없이 제약하는 사회 규범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내 몸을 움직이고 거리를 확보하며, 밤에는 언제든지 나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협에 대한 공포 없이 편안히 잠이 드는 것-가부장제 사회는 그것이 마치 애초부터 불가능한 바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여성들에게 자유나 안전 둘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웬만하면 혼자 불안에 떨며 살지 말고 가족의 그늘 안에 들어와 따뜻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단란한 이미지로 채색된 '우리 가족의 집' 그 이면에는 스스로의 일상조차 자유롭게 구성할 수 없는, 여성 개인의 통제된 삶이 자리하고 있다. 불안이 내재화된 독립생활도, 공포는 멀지만 끊임없이 나의 생활을 제약 받아야 하는 가족 내에서의 삶도 나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제한된 양자택일의 가능성이 아니라, 안전한 독립생활, 자유로운 가족 공동체 내의 생활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고 싶다.

가부장제 사회는 성폭력 사건은 여성이 밤늦게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파인 옷을 입어서라고, 그녀가 충분히 조심하지 않은 탓이라고 끊임없이 여성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린다. 그러나 성폭력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용인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권력관계 자체에 문제제기하지 않는 이상 여성 개인이 아무리 스스로를 통제한다 한들 끊임없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그녀가 계속해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성폭력 피해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성폭력이 일상화된 사회, 바로 이놈의 사회가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현재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과 활동 공간을 둘러싼 제약들을 조금씩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자기방어훈련 같은 프로그램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통제되어왔던 나의 몸을 마음껏 움직이고, 크게 소리치며, 내게 가해지는 위협에 스스로 맞서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러한 자기방어훈련은 나를 둘러싼 제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 자기방어훈련이 나의 모든 공포를 없애버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공포를 내가 한 번 싸워볼만한 존재로 축소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포에 적응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파이터가 되는 연습을 해 나갈 거다. 모든 위협을 온 좋게 비껴가 '살아남기'를 바라기보다 위협에도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by 숙연 좀 하고 싶다, 달리



● 물론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성폭력이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권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성이 실제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여성'인 성폭력 피해자를 주로 상정하고 있다.

페미니리 책 읽고 서평 쓰자!

여성학 자치 도서관 페미니리는 학생회관 3층 원뿔 끝 분홍색 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분홍색 문을 똑똑 두드리고 '페미니리 사 용하러 왔어요' 한 마디면 방해받지 않은 채 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읽고 싶고, 느끼고 싶어 차곡차곡 모아온 여성주의 서적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가 뭘까?라는 소소한 질문에 답을 줄 여성주의 입문서에서부터, 주제로서의 여성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에세이와 여성의 시각에서 저술된 소설책들.

그동안 답문으로 구성되지 않던 여성의 몸, 여성적인 것

여성의 사고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나의 관계맺음을 세밀하게 성찰하는 여성주의의 작은 목소리에 공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살아온 사고방식을 뒤집어보고 해체해봄에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연을 비롯한 모든 이와의 관계성을 고민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 이 많은 이야기들이 페미니리의 책 한 권 한 권에 스며 있습니다.

책꽂이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편안한 독서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수도, 대어목록에 도서관명을 적고 2주간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관 계단 상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총여학생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system>)에 올라와 있는 페미니리 도서관 목록 파일을 보고 전화로 요청하시면 총여학생회 집행부가 학생회관 앞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여성주의에서 여러분만의 무한한 우주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페미니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주의 책을 골라 읽고 난 후,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낸 서평을 woolm@yonsei.ac.kr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서평은 '총총는 입술, 다음 호에 실리게 됩니다. 글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서평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총여학생회에서 제작한 예쁜 퍄플러를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바생으로 살아남기

'알파걸'이기를 기대 받는 알바생으로 살기



명문대라고 하는, 그그그 SKY대 중 하나 연세대에 입학했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알파걸' 이기를 기대한다. 알파걸- 스펙 잘 쌓고 자기관리(이 사회가 여대생들에게 요구하는 자기관리란 즉, 외모관리) 잘 하여 남자들을 이끈다는 알파걸! 무슨 유행어처럼, 아니 이젠 사전에도 있는 말이던가? 하 여간 이젠 '좀 알아주는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들에겐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알파걸이라는 그 단어. 그래, 사람들은 이제 내가 모두 알파걸일 것이라, 알파걸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흠.. 현실은?

지번 겨울에는 대학생이 되어 독립을 하려고,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알바를 구해보려고 했다. 알바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지원서도 내고 직접 찾아가보기도 하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앗, 알바를 구하려고 할 때에도 외모관리를 해야 겨우 구해지겠구나.'였다. 알바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붙어있는 '용모 단정'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었다. 짧은 머리에 노랑색 염색한 머리와 편하게 입은 옷은 알바를 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자일 경우에는 안경을 쓴 것도 마이너스 요소. 모 패스트푸드점에 알바를 지원하러 갔었다. 사진을 요구해서 자갑에 있던 고등학교 때 증명사진을 냈다. 그 사진에선 긴 생머리였는데 보더니 왠, '이게 더 낫구만. 다른 사람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염색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했다. 아, 예..

어쨌거나, 결국엔 학원에 알바를 구하기는 했다. 어리게 보이면 안 되니까 옷을 신경 쓰고 입고 와야 한다고 했다. 그래요, 이제 그 정도는 예상했어요 어리게 입지 말라, 즉 신경 써서 꾸미고 입고 오라구요- 사소한 거 같지만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 이젠 알지요.

보통 여성들이 구할 수 있는 알바는 손님을 접대하는 일, 미소와 아름다운 외모가 필요한 일들로 제한되어 있다.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한 '보기 좋은' 외모와, 항상 미소와 친절로 대하며 하게 되는 감정노동은 당연히 여성들의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매니저일은 주로 남성들이 하게 된다. 여성들은 서빙알바 등을 하면서 '보기 좋은 꽃'처럼 취급되며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렇게 여성들은

일자리에서 '여성'이기에 끊임없이 정해진 기준에 맞춰 외모를 관리해야하고, 설 새 없이 감정노동을 부가 받는다.

아는 친구의 언니는 영화관에서 매표하는 알바를 했었다. 거기서는 손님보다 예뻐 보이면 안 돼서 립스틱 색, 스타킹 색 등이 정해져있었고 머리도 있으면 안 된다고 정해져있었다고 한다. 외모를 '예쁘게' 꾸며야 하기도 하고, 또 때론 이렇게 너무 예쁘지는 않게 꾸며야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성들에게 일, 그리고 기준에 맞춘 외모관리는 서로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다.

이런 것은 알바뿐만이 아니다. 알파걸, 알파걸 해대지만, 알파걸? 아무리 평등한척 하고 '위해 주는 척' 하지만 취업하기 어려우니 스펙을 더욱 열심히 쌓아야 하는 거고,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여성에게 제일 중요한 건 외모관리인 것이다. '여성스럽게 보이는 외모관리'와 덧붙여 요구되는 것은 '여성스러운 태도'이다. 여성스러운 태도라는 건- 여자니 더 친절하게, 불평 없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자잘한 일들은 당연하게 더 해야 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애교를 적당히 떨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며 하게 되는 감정노동이 여성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에 속한다.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아무도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지만 당연히 여성이니 해야 하는 일이다. 감정노동, 중요한 노동이다. 중요하고 힘든 이 노동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대가 없이 여성에게 전가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다. 어찌 보면 말은 안 해도 여성에게 가장 처음부터 중요하게 기대되는 일인 것이다. 알바가 아니라 회사 같은 직장이었다면 더 심했겠지 욱.. 그럼 알파걸이 되면 또 다 나아지나? 절대 아니다. 알파걸이 되어도 여성으로서 기대되는 그 모든 일들, 아무 말 없이, 당연하게 감당해야 한다. 한국 어느 직장이라도 상황은 같다. 알파걸로서 얻을 수 있는 직업과 아닌 직업이 수당이나 직위 등에서 차이가 커 보일 수도 있다.(실제로 크기도 하다.) 하지만 직장 안에서 평가되는 방식, 일들이 전가되는 방식 등을 통해 차별이 작동하는 맥락은 같다는 것이다. 대놓고 '여자니까'라는 이유를 붙이지는 않아도 속으로 '이 자잘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커피심부름, 복사, 음식점 예약, 사람들 싸우면 화해시키는 일, 차 끌어와서 달래주기 등등등'-은 당연히 여자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불평하지 말고, 그저 스펙 열심히 잘 쌓고 자기계발 하면 알파걸이 되어 성공할 거야~ 라고 이 사회는 말하고 있지만, 이런 그저 현실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숨기는 말일 뿐.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여성 개개인들에게 문제를 돌리는 말일 뿐인 것이다. 알파걸, 알파걸 해대며 알파걸이 독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그런가? 아니지 않은가. 알파걸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차별에 직면하고,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알파걸 해대는 것이다. 알파걸이 되어야지 그나마 살 수 있으니까.

이젠 여성상위시대라고, 알파걸들이 남자에게 다 누르고 사는 시대라는 건 다 헛소리다. 알파걸이 되어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을, 알파걸들이 독재하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소리에 어이가 없고 전절머리가 난다. 알파걸? 사막의 신기루 같은 소리다. 정말, 알파걸알파걸 소리를 들으며, 난 오늘도, 알바생으로 산다.

by 라임



어느 한 '여학생'의 '참 쉬운' 대학생생활



1학년

2월

- 술, 게임, 술 게임... (무한루트)
OT/스터디 추억은 그렇게나 허전한 것

3월

- 반방에 죽치고 있는 복학생 선배들, 결국 반방에서 지는 건 포기
- 빅 올 사령은 생각도 있는데 혼자 김치국을 벌떡 벌떡 끓이며 작업 가는 남자 선배. 반에서 괜히 안 좋은 소문 날까봐 애물단지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미치겠다 정말
- 동급 때문에 술자리에서 일찍 나하는데 왜 맨날 일찍 가니고 성화인 남자 동기들. 아,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가니? 남의 속도 모르면서 저런 식으로 타박하니 짜증이 솟구침. 사실 오래 남는다고 재밌는 것도 아님. 지들끼리 위닝하고 당구치고 난리인데 남아 있으면 뭐하니.

4월

- 정말 오랜만에 시험 준비하고 중도에서 방에서 공부하려니 어질어질함. 그 와중에 여자애들 미니스커트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불평하는 어이상실한 눈이 있잖나.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농담이 따증을 가중시킨다.

5월

- 이카라카 재밌다고 난리더니 주구장창 연예인 공연만 보고, 이러면 음악중X, 인기X, 유적X X 보는 거임 크게 다를 게 뭐가 있냐. 용원도 적당히 해이 재밌지 3시간 동안 주구장창 연세를 외쳤더니 목도 가고 온몸이 무시고, 이제 용원도 술술 질림
- 대동제 정터 때 여자애들은 죄다 요라하고, 남자애들은 짐 나르고 난 요리 잘 하지도 못하고 재미없어서 짐 나르려고 했는데 남자애들이 연필의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서 그냥 관음.



2학년

6월

- 농담. 다 좋았는데 어떤 농담이 우리 반 여자 선배를 친구함의 표시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난. 반에 문제 제기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놀랐다는 말뿐임. 몰랐으면 다나 이놈들이.

9월

- 합동공연장에서 음치하게 서로 까대는 응원단 때문에 응원에 장 떨어짐. 정말 별 것도 아닌 걸로 서로 나 찼구나 너 찼구나 하는 거. 우습고 유치해... 이런 연고전 때문에 흥분하는 애들을 무심한 듯 시크하게 쳐다봐줌.

2월

- 등록금 고지서 날아온 거 보고 부모님 나 오두 입에 거품 뿜게 생겼음. 작년에는 동갑되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올해 어지없이 오른 학자금 대출 버전을 클릭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빚 언제 다 갚나 생각하니 눈물이 남.

2월

- 새내기 때는 그나마 반방도 좀 들락날락했지만 이런 길 많이 없음. 가면 죄다 남자애들이 점령하고 있고 여자애들은 별로 보이지도 않고. 공감 때는 어휴에 가서 쉬는데 항상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발 뻗고 눕기도 힘들. 아래 자리에 갈 데가 없음.

2월

- 2월 3초라는데 난 아직도 연애 안 하고 뭐하니고 친구들이 옆에서 잔소리함. 그놈의 2월 3초에 여자는 스물다섯 넘으면 짝인다는 말까지 정말 질린다. 질려 크리스마스가 한 달밖에 안 남았음. 왜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옆에서 하도 뒤달리는 거 지겨워서라도 연애를 하긴 해야 함.

2월

- 소개팅이 어찌 어찌 잘 돼서 애인이 생김. 다행히 올 크리스마스는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애인이 있다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음. 사귀는 것 주박에 안 자는데 벌써부터 지긋지긋해 지분거리려고 하고 자기 나이 좀 많다고 자주 나한테 가르치려 함.

3월

• 항상 내 앞은 커피로라도 안 들고 지
않고 올라고 우기는 애인이랑 대면
싸우고 결국 매질 치라리 질 됐다.
그런 농한데 시간 낭비한 게 아까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토익, 토를
시험 보려면 영어 공부 학제에 해야
될 근데 시험 한 번 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비싸고 난리... 토나올.

9월

• 다들 교환학생 가거나 고시준비하거
나 인턴하거나 정신이 없어서 친구들
얼굴보기가 힘들.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은데 뭘 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임.

3학년

5월

• 졸업사진 찍는답시고 엄마랑 같이 옷 사고
머리 하고 난리를 마음. 박사 사진 찍으러 와
보니 최다 천만일월적인 패션-검은 정장 치
마에 하얀 블라우스에 잘 하지도 않는 화장
을 두껍게 해서 얼굴이 갑갑하고 억지 미소
를 짓더니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지경임. 돈
은 돈대로 재치고 작음 안 되고 피곤하고 미
거 내가 왜 찍었지? 중대 시험에 진출할 때
쓰려고 찍었나. 어휴.

9월

•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취업해야 할 여가 왜
아직도 이렇게 추레하게 하고 다니냐고. 권
리 좀 하려고 해서 충격 받은. 얼마까지 심형
종 하려고 해서 짜증 폭발함.
• 취업은 해야겠는데 뭘까 다 어중간해서 막막
하기만 함. 주변에 완벽한 스펙을 갖춘 친구
가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낯은 원세이다. 즉
죽 떨어질. 공대 친구인데 친구 말로는 교수
들이 남자들만 엄청 끌어준다고 함. 예휴. 청
말 운 좋게 자기가 원하던 것에 취직한 친구
도 있지만. 국소수원 원장 방송에서 알파걸
알파걸 따들어대는데 알파걸 그거 뭐임 먹는
거임. 현실은 시궁창인걸.

4학년

그 몇 일이나, 몇 일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그따위 입학식. 학생처에서 윤세이 프라이드를
높인다는 음모 아래 잠실실내체육관에서 2009년 신입생 입학식을 진행했더랬지요. 아주 성대하
게. 다들 어떻게 기억하시는지요? 입시전쟁에서 이룬 승리를 기념하던 자리였던가요. 앞으로 펼
쳐질 대학생활의 암울한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던가요. 혹시, 마냥 웃으며 입학식 한 자리를 차지
하고 앉아있기에는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쏟아지는 어이 없는 광경들에 기진맥진하다, 자리를
박차고 날아올라 자기 저 단상을 날려버리고 싶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할지도 모르겠는 난감한 입학식. 마음을 가다듬고 잘근잘
근 씹어봅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참으로 신선한 기획이 등장했지요!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연예인들을 불러모아 콘서트를 보여주었어요. 아 신선해라. 입학식에 연예
인 콘서트라니요. 물론 뭐 '그녀의 입술은 맛있어, 그녀의 다리는 멋져, 10점 만점에 10점' 따위
의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거기다 침수까지 때기는 연예인이 등장한 건 기본이고, 여성 연예인
이 나왔을 때 무대로 뛰어올라가기를 시도했던 짐승들도 있었지요. 어쨌든, 입학식에 연예인을
부른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참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너무 잘 이해가 돼서 난감합니다. 공고한 학
벌주의 사회에서, 연세대에 입학한 것은 학벌 권력을 획득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해 나가고, 어떤 경험을 하며 생활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없을 테지요.
입학한 것만으로 이미 획득한 강력한 권력이니까요. 축하해, 경쟁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밟고 마
침내 너 권력을 획득했어, 연세대학교 오길 잘했지? 이것 봐, 연예인들도 볼 수 있잖아. 즐겨, 이
권력을! 이를 못 박는, 입학식이 끝날 무렵 총장이 나와서 한 말이 참 인상 깊었더랬지요. "연세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연세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아이고.

연세 오길 잘했다는 생각?
등골이 서늘하더이다



어느 행사나 절대 빠질 수 없는 악하락하 응원단도 어김없이 등장했더랬지요. 응원은 참 유행처럼 모든 학교생활에 둘러붙습니다. 주로 '온셰이 프라이드'를 높이면서, 연세인은 하나다! 라고 외치며 모든 문제를 무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이 응원. 이제 막 입학한 학생들은 처음 보는 다른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고 이 뭔지도 모를 응원을 해야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응원 속에는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해 나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생활을 해나갈지 같은 고민들은 전혀 들어있지 않지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는 하등 관련 없는 그 응원이 어째서 그다지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지, 처음 입학한 사람에게 '우선 우리학교 응원부터 해봐'라고 말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 너무 뻔히 보입니다. 학교 당국은 학생을 함께 살아가며 관계 맺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할지, 어떤 고민을 하며 지낼지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당 등록금 수익 몇천만원, 관리해야 할 대상, 졸업 후에 잘 되면 연세대학교를 빛낼 인재, 그리고 학교에 후원금을 낼 존재쯤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응원은 학생들을 관리하는 참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발적'으로 연세를 '응원'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는 '예교심'은 학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학생들 개인의 경험이나 차이나 불편함은 모두 삭제해버리고, 학생에 대한 학교의 횡포를 간단하게 덮어버리는 효과를 낳지요.

그래요, 학교당국에서 기획한 입학식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교로선 학생들의 생각, 경험들은 신경 쓸 필요조차 없지요. 끊임없이 '온셰이 프라이드'를 높이고, 그렇게 학벌주의를 재생산하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그 행사는 본



학생들 어떤 생활을 할지, 어떤 고민을 하며 지낼지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당 등록금 수익 몇천만원, 관리해야 할 대상, 졸업 후에 잘 되면 연세대학교를 빛낼 인재, 그리고 학교에 후원금을 낼 존재쯤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래의 기획의도에 따라 참 잘 진행되었지요. 그래서 굳이 잠실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한 그 많은 돈을 펄펄 써가며 연예인 부르고 응원을 하고 그랬겠지요. 그 입학식 속에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등록금에 대한 문제제기도, 학벌주의에 대한 성찰도, 학교와 학생 사이의 엄청난 권력차이와 학교의 횡포도, 학생들의 목소리도 모두 덮어버렸지요.

사실 말이지요,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있었습니니다. 많이들 모르실지도 모르겠네요. 학생 대표들이 함께 준비해서, 입학식에서 이야기하고자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1년에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은 어디에 쓰이는지, 왜 끊임없이 등록금은 오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학교에 문제제기하고 싶었어요. 송도캠퍼스가 1년 후면 개교한다는데, 구체적인 계획 하나 안 나와있는, 혹은 학생들에게 안 밝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학생들, 교직원들, 교수들, 시간강사들, 학내노동자들 등-이 평등한 관계를 맺어나가기는 커녕, 학교당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가기 바랐지요. 하지만 입학식에서도, 심지어 입학식에서도, 그렇게 준비했던 학생들의 의견은 간단히 삭제되어버렸지요. 각 단과대의 학생대표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목소리로 소개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학생대표들이 준비했던 이야기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고, 남은 건 응원과 연예인과 하울뿐인 '온셰이 프라이드' 뿐이더랬지요.

입학식을 한 차례 겪으면서 다시금 생각했지요. 학교와 학생은 어떤 관계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대학이 확실적인 기준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학교가 1년에 1,000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마음대로 책정해도, 학생들은 학교를 떠날 수가 없지요. 울며 겨자먹기로, 그 바뀐 등록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성적이 졸업 후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3~400명씩 듣는 강의에 어이없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순위매기며 경쟁을 부추기는 학사 제도에 문제를 느끼더라도 학생들은 성적에 매여 문제제기 할 수 없습니다. 송도캠퍼스에 관련한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내년에 부분개교가 확정되었고, 강제로 일부

학생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학교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아무런 계획 발표하지 않는 상태이고, 그 비밀계획에 학생은 단지 학교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문제제기할 통로도 없고,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더라도 간단한 학사제도 하나 바꾸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배' 아닌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하고, 먹고, 놀고, 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학교 당국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지요, '지배'라고 하는 관계는 더 이상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처럼 복장을 규제하지도 않고, 강제된 수업이나 정당화되는 체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배는 더욱 섬세해졌지요. 마치 자발적인 선택인 마냥, 학생이라면 원래 그래야 한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통제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터무니 없이 높은 등록금을 내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학사 제도 역시, 더욱 열심히 경쟁해서 성적을 잘 받으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으며 불합리한 학사제도에 관한 이야기는 물어버리지요. 끊임없이 응원 등의 쇼를 통해 연세프라이드를 높여 학생들에게 맹목적인 애교심을 높이며 학교 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을 가리려는 것도 이러한 지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세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라는 총장의 말이 아직도 섬뜩합니다. 학벌 사회 내에서 연세대학교의 권력을 한껏 내뽐는 그 말 속에서, 학교당국이 학생들에게 휘두르는 권력 또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느꼈지요. 등록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니지 말아라. 다른 학교에 장학금 받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연세대학교에 다닌다는 프라이드를 가져라. 실은 이 연세대학교 안에서는 노동자를 착취하기도 하고, 학생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부조리한 권력 관계가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잊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상적인 억압에 자신을 길들이고, 학교를 찬양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실 그것이 입학식에서 학교가 건네는 유일한 메시지였지요.

이제 겨우 봄이네요. 가끔 저 높이선 분들이 백바지 입고 학생과 함께 연세 응원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진리나 자유나 연세 비전을 부르짖기도 하는 등, 앞으로 입학식 못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끊임없이 학교당국의 만행들을, 그 속에 담긴 권력들을 폭로해나가야겠지요. 입학식에 떨떠름하고 석연치 않았던 우리, 분개하고, 또 분노를 삭히던 우리,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해나가보아요!

by 학교길아임고심다는 _ 수영

학생회, 성폭력을 묵인하기로 '의결' 하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거부했던
상경·경영대 학생회의 '선택'에 부쳐



2009년 2월, 상경·경영대학 학생회(이하 상대 학생회)가 상경·경영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연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이하 상담실)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거부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학칙에는 대학기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올해도 상경·경영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오리엔테이션에 1시간가량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몇몇 중운위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권리임을 이야기하며 학칙으로 의무화되어있는 교육을 차후의 대책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상대 학생회의 사과와 함께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상대 학생회는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이하 상운위)에서 외부강사의 교육을 받지 않기로 의결했고 이를 총여학생회에 전달했으므로 사과문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그리고 차후 대책에 있어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는 상대 학생회로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전달받은 바가 없으며, 또한 그러한 입장은 총여학생회가 아니라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이자 상대 학생회에 그를 제안하였던 상담실에 알렸어야 했다. 그러나 상담실에서는 2월초에 학생회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안하고 당시에 상대 학생회로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짜와 시간을 전달받은 이후로는 상대 학생회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2월초에 상대학생회로부터 전달받은 일시에 신입생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해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경·경영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당일이 되어 상담실에서 상대 학생회에 심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 학생회에서는 단 한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상담실과 총여학생회에서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력

학생회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입생 당사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다. 신입생은 누구나 학교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인 학생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 학생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성폭력 예방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곧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필수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과연 성폭력 예방교육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 첫째, 기존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해온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관점들을 바로잡지 않아도 신입생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뉴스나 드라마에서 성폭력이 묘사되는 방식은 거의가 가해자중심적이다. 그들은 성폭력을 '자기 처신'을 잘 못한 사람이 '어쩌다가' '미친' 사람을 만나서 당하게 되는 '일회적 사건'으로 왜곡하고, 어두운 골목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시각 속

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의 개념을 재구성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행복이라는 것이 단지 지금 상황에 만족한 채로도 만족할 수 있는 '가진 것'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사회의 억압적인 권력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폭력과 그로 인해 감응한 행복의 필요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복은 기존의 가치기준들을 뒤집어보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시각을 찾아내는 것. 그러한 시각을 통해 만들어 낸 자신의 가치를 추구해나가는 과정이 다른 아예 의해 박탈당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권력이라는 것 역시, '가진 것'이 기존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나 제도적 장치라는 한정한 수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는 기존의 권력관계에 문제제기하고 그러한 권력관계가 비가시화해온 이들의 삶을 드러내는 투쟁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원인인 성별권력관계를 정당화하게 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부추기게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 속에서는 신입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공동체에서 비난받을까 두려워 성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둘째,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몰라도 신입생들은 잘 살아낼 수 있다고 넘겨칠어도 괜찮은가? 성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신입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학교의 성폭력 상담실로 신고하면 상담과 함께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공동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도 괜찮은가?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성폭력의 상처로부터 치유 받고 싶어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더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렇듯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적 분위기가 만연한 학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이며 신입생들은 이를 알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학생회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신입생의 권리를 차단해버리는 '선택'을 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성폭력을 막아내는 것을 공동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여기지 않은 결정이다. 우리가 정말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 공동체의 누군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막아내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

학생의 손에서 시작된 반(反)성폭력 학칙

반성폭력 학칙은 학생으로부터 제정되었다.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학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칙제정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997년부터 대

학내 반성폭력학칙 제정운동이 전개됐고 지금은 그 결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폭력 관련규정을 별도로 개정하거나 학칙에 반영하고 있다. 연세대 역시 2000년에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된 뒤, 이를 보다 잘 시행하기 위한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학생, 교원, 직원과 같은 학내 구성원들이 이 학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10. 10, 1회 개정 2004. 11. 25, 2회 개정 2007. 12. 22)

제1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막아나가기 위한 약속이 왜 '학칙'이라는 형태로 제정되어야 했을까? 이는 첫째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내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반성폭력을 고민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둘째로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과정이 어떤 단위의 일방적인 책임방기에 의해 무시되거나, 망각에 의해 시행되지 못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성찰하지 않은 채로 우선순위에 밀려남으로 인해 학내 구성원이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공간인 대학에서는 무수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당국이나 학생사회에서는 이를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사소한 문제,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의 상처로부터 치유 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탓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꾸지 못하고 공고화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발생을 막아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합의과정에서 도출된 것이 바로 반성폭력 학칙이며, 여전히 그 학칙의 의미는 중요하다.

이러한 반성폭력 학칙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상담실의 교육 내용은 오른쪽과 같다.

오른쪽과 같은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인식에 문제제기하고 또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현재 상담실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학부, 대학원 신입생, 기숙사 입학생,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을 대상으로 교직원 수양회, 신입교원 오리엔테이션 교육, 강사 오리엔테이션 교육에서 그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성희롱예방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1. 3. 15, 1차 개정 2004. 11. 25, 2차 개정 2007. 12. 22)

제6조(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학기 1시간이상 실시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성폭력 사건 발생시 학칙에 의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특히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그동안 많은 학생회의 동의와 지지 아래 단과대학 학생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실시해왔다. 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많은 신입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각 학생회에서 지속적으로 반성폭력을 이야기하고, 이를 학생회의 고민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반성폭력 교육은 단지 상담실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학생회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또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학생회가 반성폭력 학칙을 놓아버린다면……

상대 : 저희는 꼭 그것(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육해야 할 의무 보다는 협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안도 성폭력상담실에서 먼저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회가 절대로 놓아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학생의 권리다. 학생을 400만원에 18학점을 사는 고객으로 보는 학교나,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한두명 정도의 학생은 침묵하라 종용하는 과/반에서 학생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짓밟히기 때문이다.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아야 할 학생의 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교 당국은 사람을 덜 고용하고 제도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이윤을 쫓아먹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감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폭력을 막아내기 위한 부서와 제도들이다. 학생회는 이러한 학교의 무책임함과 싸워서 학생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학교 당국이 알아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마련하겠지 짐작만 하는 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인력 고용과 제반환경 마련을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 학교가 안달내면서 양해를 구하면 학생회 행사에서 아까운 시간 빼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넣어줄 수도 있다고 거드름 피우는 게 아니라, 학생회가 주체적으로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여 학교가 그들의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 사회에 깊숙하게 존재하는 성폭력적인 분위기는 누구도 아닌 학생회 스스로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OT/세터 기간이면 무수히 발생하는 과/반에서의 성폭력 사건들을 눈앞에 두고도, 성폭력 예방교육 없이 신입생들에게 자기가 알아서 자기 몸 챙기라는 태도는 학생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학생회는 가부장적인 학생사회를 스스로 성찰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한 반성폭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학생 사회에서 풀어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학생회는 학생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풀어나가야 한다. 물론 반성폭력 학칙에 대한 인지도나 여성주의에 대한 지식이 많이 갖아든 학생사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결'이라는 이름 아래 성폭력 피해를 막아내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학생회의 손에서 놓아버린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회 체계 속에서 단과대 운영위원회 의결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그러나 단지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거쳤다고 해서 모든 학생회의 결정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 학생회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도 공동체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가려온 기존 사회의 권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회 곳곳에서, 대부분의 과/반 공동체에서 여성에 대한 문제, 반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겪는 크나큰 고통 역시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 권력이 그러한 의결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러한 권력관계가 부당하지는 않은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상대 학생회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거부하게 된 의결내용을 공개하고 의결전후의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세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반성폭력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이 결정된 것이라면 그로 인해 학생의 권리를 박탈한 상황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표명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1시간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놓아버린 것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성폭력을 막아내기 위한 후속조치를 해나갈 것인지 의사를 밝히고 이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사건을 함께 성찰하여 학생사회에서 다시 한 번 반성폭력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그 의결이 단지 1/2형식 1/2찬성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채운다고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학생사회에 의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관된 토론 등의 민주적인 의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 의결에 대한 충분한 고민에 기반 하여 이루어졌다면, 거기에서 더해 주어진 의제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우리는 차후에 어떻게 대처해나갈지를 고려한 후에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비로소 그 의결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2009년 3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의결 이전에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어떤 공론화과정이 있었으며, 의결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상대 학생회로부터는 '우선순위에 따라'라는 '의결한 사항이다'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연세대학교의 여성정책을 찾아서

결국 여학생회가 '책'이 아닌 '센터'가 되었다. 기계적으로 보면 위상이 낮아져서 나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기능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나쁜 것 같기도 하다. 결국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이 '실'이 아닌 '센터'가 되었다. 기계적으로 보면 위상이 높아져서 좋은 것 같지만, 그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별반 좋을 것도 없다.

연세대학교의 여성정책을 찾아서

제목은 그럴싸하지만 연세대학교에 여성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나? 여성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지만 '정책'을 결정할만한 분들에게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리더십 센터 아래로 넣는다고 우기는 괴사건이 벌어졌겠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성폭력 대책위'의 최고 높으신 분이 '반성폭력 교육 같은 건 그냥 위원들한테 메일로 보내라'며 회의를 파토내시겠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성추행을 일삼고 나는 성폭력 상담실장이라 이레도 된다며 웃어제끼던,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일 뿐인 교수가 성폭력 상담실장을 맡겠는가. 이레서야 처가 센터가 되건말건 실이 센터가 되건말건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알아서 잘 하리라 방치하고,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할 인력이나 예산 배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눈에 선하다. 때때로 총여학생회에서나 목에 핏대를 세우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반발할 것이 안 봐도 비디오다. 아오 다들디리 봄부터 소책새가

① 2008년 2월 행정부서 개편안이었으나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다.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이랑 리더십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몰았더니 '상담센터'가 있으니 그 일부가 되면 된다. 이 '상담센터'는 우리 학생들이 정신건강이 나빠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끔 운영하는 '심리상담소'인데, '상담'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전자의 후자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 위로부터의 결정의 특성이다.

② 성폭력 대책위는 학칙에 의거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단체로, 학내 주요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결정과 성폭력 예방 교육 정책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데 학생위원회/교수위원회/교직원위원회로 구성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위원들은 매해 1회의 반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③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아니니 신상을 캐지는 말자.

우쭐했다 정말.

왜 학교에 여성 정책이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 학교가 만들어질 때부터 남학생 기준, 남교수 기준, 남높으신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해드릴진데, '여학생이 40%에 육박하는데 왜 따로 소수자인 척 하나'고 말하면 참 답이 없다. 여학생이 학교에서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을 열심히 설명해서 여학생 휴게실을 만들었더니, 숫자는 남학생이 더 많은데 왜 남학생 휴게실이 없냐고 묻는 것과는 서로 모순된 질문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의미다.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지 않은 공간, 여성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은 공간에서 아주 열심히 오래오래 공을 들이면 여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남성들만의 공간'이 '여성들이 함께 있음을 인정하는 공간'이 되려면 그 과도기에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겨우겨우 조금씩 바뀐다. 그래서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효율'이 되고, 그 노력을 하자고 권장하는 것이 '편한 시비'가 되기 쉽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논지당이 '여성 동문들이 여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해 만들었다'는 설명을 해도 여학생 휴게실로 쓰는 것을 '노는 공간'이라며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고, 중앙 도서관에 칸막이도 없는 휴게 공간을 만들어놓고 '왜 두개나 있냐'며 '그나마 여학생들이 발뺌고 쓸 수 있는 공간'인 여학생 휴게실을 없애려고 드는 것*,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가 '아직 학생들이 신식 문물(트랜드)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당해진다.

다시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미 2004년에 교육부령 요구안으로 걸었던 '성폭력상담실 독립기관화'는 학교 측과 협의된 사항이었다. 이번 행정개편에서야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은 학생처 산하의 특별기관이 되었다. 그렇다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을 강화하기 위한 2004년의 교육부령 협의안이 이행되었다고 보기에는 썩어지근하다. 지난 5년간 틀리는 대로 '왜 학교는 교육부령 협의안을 이행하지 않는가'를 묻고 '왜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설득하다보니 이제 그냥 '행정개편 하려다 이렇게 되었을 뿐인 것쯤은 알기 때문이다. 학교의 '효율적인 경영'이란 상부에서 모조리 결정 내

● 학술정보원에서는 중앙도서관 6층 여학생 휴게실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슬쩍 떠났다가 철회했다.
● 2009년 가을, 투명 엘리베이터 불투명 처리 요구에 대한 학술정보원과의 민심에서 직원 발언

려놓고는 '파르라' 하는 식으로, 위아래로 고스톱 패 맞추듯이 이러저러 끼워맞춰서 편한대로 행정부서를 개편하는 것임을 경험으로 알게된 것이다.

그러니 별반 기대도 안 했지만, 막상 닦치고 보니 더 난장판이다.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이 독립기구가 되었지만 예산 배정도 안 되고, '학교 기구'로서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정직원을 안 뽑아서 피신고자 조회도 못 하고, 인력 배치도 안 되니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태가 지속될 뿐인 것이다*. 이게 독립기구화의 의미가 아니었다며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결정을 내려놓고 팔짱끼고 앉아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여성 정책을 준비하고 만드는 책임을 나몰라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마음 상하지 않는 선에서 요구 혹은 구걸해야 한 번 들어줄까말까인, 이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콧대만 높은 '결정권자'들을 어찌해야할까잉.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더 적은 사안이 빠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면, 이사진 임김이나 줄여들게 하고 총장 내기는 대로 아무 사업이나 벌리지 않고 돈 벌 궁리나 적게 하면 되는 거다. 내가 경영은 몰라도 몇년간 학교를 지켜보니 이 학교가 왜 이따위인지는 좀 보인다. 실무자나 직접 여기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반영도 되고 그래야 학교가 잘 굴러가는거지, '돈을 극대화하기'만 좇는 걸 경영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돈 밝힌' 결과가 아무 적에도 쓸모없이 돈놓고 돈먹는 '펀드 투자'가 되거나 '부동산 투기'가 되는 이 마당에는 더더욱 그렇다.

방치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 반성폭력 학칙, 제정된 이유가 뭘까? 학내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도를 통해 실현하는 가치가 성평등의 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그제 학교에서 사는 사람들을 덜 불행하게 하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을 통해 보호하고자 했던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는 관심이 없다며 눈을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학교나 학생 사회나, 결정권자들이 그걸 '없앨 수 없어서' 그냥 두고 요리조리 피하고, 그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 없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오 동동다리.

●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에 가 본 사람은 '상담원' 한 명과 몇 안 되는 근로학생들이 지키고 있음을 알 것이다.



학교에는 학생들과는 다른 차원에 사는 저기 높은 분들께서 산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학생들의 앞은 컵으로 안 들고, 천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기 높은 학교의 권력자 분들. 그 권력 한껏 발휘해 학생들에게 내뿜는 망언 혹은 막말은 그 높은님 하들의 취미이자 특기라고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저기 높은 분들의 망언들! 지금껏 나를 분노하게 했던, 어이가 없었던, 심지어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던 망언들을 한 페이지 가득 모아봤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저기 높은 분들의 망언 직렬!

2009년 높은님하와 만난 자리에서②

송도캠퍼스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이야기에 "어차피 2010년에 개교하면 지금 있는 학생들은 상관없는 얘기다"라며 말을 잘랐다. 그럼 대체 어느 학사단위가 이전하게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외과대학이 먼저 총대를 메야지"라며 송도캠퍼스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2008년 동책위에서,

어떤 학생 아닌 사람이 그랬대였죠, "등록금 낼 돈 없으면 자~기 낮은 대학교 가서 장학금 받고 다니면 되잖아?"

2008년 공대위 본관 앞 집회 중,

저기 높은님하가 학생들이 집회하고 있는 것 보고 저 옆에 학생 아닌 또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길 "아, 재네 뭐야?" 그래서 우리가 답했죠 "학생인데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내가 니 사용자다 -_-"

2009년 입학식에서,

연예인들의 공연과 아카라카의 응원 등을 보여주고 난 후, 행사가 끝날 무렵, 저 높은님이 말하더라구요. (독의장강하게) '어때요? 연세 오길 잘했죠?' '어때요? 연세 오길 잘했죠?' '어때요? 연세 오길 잘했죠?'

2009년 높은님하와 만난 자리에서①

성목력 가해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로 오르자 "내가 교육 폭바로 시키라고 안그래도 말해두었다"며 생색을 냈다. 그러다가 성목력 상담실에 데이트 성목력에 대한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런 것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인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런 일 없을 거다"고 자부했다.

2009년 높은님하와 만난 자리에서③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 시설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러려면 등록금을 올렸어야지. 등록금은 왜 해, 등록금은"이라며 뛰어난 경영마인드를 드러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더라. 오늘은 인터넷 포탈에 들어가기 싫겠구나, 생각하고 싸이에 접속하니 아니나 다를까, 반짝반짝 돌아가는 뉴스란에 김연아 선수 얼굴이 가득하다. 팔과 가슴팍을 살구색 시스루 소재로 만든 피겨복을 입었을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편집된 사진에 눈살을 찌푸린다. 아, 나는 김연아가 불편하다. 불편해 미치겠다. 이 불편함을 만든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캐봐야만 쓰겠다.

김연아 선수, 참 곱다, 고와 아잇 참 불편하구나



경쟁에서 승리한 한국인의 표상, 거기까지일 줄 알았어

'제 2의 김연아'를 보고싶지 않나 며 피겨 장학금을 조성하는 복권을 사라는 광고가 있었다. 그래, '비인기종목'의 운동에 자원이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면 좋다 치자. 어려서부터 피겨를 하기 위해 들이는 돈이 '암전히 공부하는 것(사교육이 개입되더라도)'을 훨씬 웃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그게 '아주 잘 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왜 '제 2의 김연아'인가? 왜 '피겨 꿈나무'라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천진한 얼굴로 웃으며 '사세요, 그래야 나도 김연아 선수처럼 될 수 있어요'라고 요청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야만 할까? 왜 피겨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제 2의 김연아'가 나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까? 왜 '다음의 1등'을 지키기 위한 피겨 육성이 되어야만 하나? 김연아 선수가 나이들고 은퇴하면 1등 빼앗길 것이 걱정돼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맹목적으로 지속되는 '1등병'은 이 사회의 승자 독식의 문화가 스포츠에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각자의 국가에서 제일로 운동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에서 누가 제일로 잘 하나를 따지는 것이 스포츠에 대해서는 누구나 권위를 부여하는 올림픽인데, 그 잘함의 기준은 (남들보다)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다. 그리고 그 특성은 '누가' 잘한다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잘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스포츠를 생각하니, '경쟁해서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고 1등하는 것'이 아닌 스포츠는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경쟁의 목적이 아닌' 누구나 접하거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의 하나로서의 피겨는, 이 사회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럴 환경이 조성되지도 않거니와, 취미로 피겨를 하며 적당한

한 근육과 만족할만한 건강과 일상적인 행복감을 가진 이의 삶이,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해서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지만 '피겨를 하며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다'고 말하는 김연아의 삶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당연한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피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피겨 스케이터의 팬'과 '극소수의 피겨 스케이터', 그리고 더욱 찾아볼

수 없는 '피겨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다. 피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자원의 집중이 '피겨 꿈나무'를 위한 특수한 시설에만 집중이 되는 것은 사회의 스포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낳은 기형적인 상태다. 피겨라는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것을 더 많이 접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는 링크와 누구나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신발들이 있으면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어린 나이에서 20대 초반까지의 '건강한 몸'만을 위한 장비들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나이의 다양한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는 장비들이 개발된다면, 즐거움을 위해 건강을 위해 피겨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범주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직업이 선수로만 한정되지 않고, 피겨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옷만드는 사람/ 운동하면서 겪는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교육자-치료사/ 그 즐거움과 감정을 잘 잡아내는 사진을 찍는 사람과 그 외의 많은 사람들로 뻗어나간다면, 잘해야만 한다는 부담 없이 즐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피겨라는 운동 자체를 고민하고 함께 경험하는 환경에서야 사회적인 이해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운동이 매개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사회화하려는 노력 없이 그저 특별하게 잘난 이가 또 나오리라고 믿는 것은, '또 1등하지 못해서 슬프고, 다른 종목에서는 1등하지 못해서 슬프고, 제 2의 김연아가 나오지 않아서 슬프고, 연아만 못해서 슬프고, 이리저리 슬픈 현상만이 지속될 뿐일 것이다.

성애화된 이미지, 그럴 줄은 몰랐어

엄마야, TV광고 시간에 김연아가 나온다. 자주 나온다. 지금 찾아보니 10개가 넘는 광고를 찍었다고 한다. 어떤 광고는 교복을 입고 손으로 하

● 겨울이 아닌 계절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빙판은 서울에 몇군데 되지 않을 뿐더러 취미로 하기에는 꽤 고가인 것으로 보인다. 지기 스케이트 없는 성인 1인 기준으로 신촌에서 30분걸리는 육동 아이스링크 7000원, 신촌에서 천천히 1시간 걸리는 라드월드 아이스링크 13000원, 신촌에서 버스로 1시간 걸리는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 8000원.





트를 그리며 '발랄하고 귀엽게' (심지어 여성 아이돌 원더걸스와 대등하게) 나오고, 어떤 광고는 그녀가 훈련하는 과정을 찍은 것처럼 포장된 영상에 나레이션을 입혀 '죽도록 노력하고 좌절을 거듭하여 감동적으로 성공한, 그러나 가냘픈' 이미지로 나오고, 어떤 광고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박세제' 훈련하는, 흘리는 땀방울이 섹시한 운동인의 이미지로 나온다. 심지어 하늘하늘한 피겨복을 입고 에어컨 옆에서 엉덩이를 흔든다. 이 영상들은 모두 현실세계의 김연아와 다르다. 2003년부터 국가대표였더니 교복 차려입고 학교에 갈 시간도 적었을 터이고, 재차 넘어지며 연습하는 것은 '좌절'의 상징이 아닌 '일상'이었을 것이며, 피겨 스케이터가 저런 근육운동을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고, 피겨복을 입고 피겨화는 신지 않은 채로 저런 춤을 추는 건.....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만든 건가???

김연아의 이미지는 이렇게 어치구니없이 팔린다. 그리고 '광고' 이니 만큼 어디에서든 그녀가 여성이라는 것은 과장되어 활용된다. 일단은 기만으로 소비를 창출하는 광고 자체의 속성에 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나마 덜 성애화된 스포츠에마져 '여성 선수'라는 이유로 과잉성애화를 아끼지 않는 방식에 치가 떨린다. 그 둘이 결합하니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기분나쁨을 무럭무럭 퍼워낸다. 사실 이런 사악한 일은 광고도 광고지만 언론도 만만치가 않다. 그녀의 열애설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하고, 그녀의 매력을 분석한다며 아마가 이쁘니 눈매는 섹시하니 몸매는 황금비율이니 뭐니하는 헛소리가 난무하며, '김연아 이마에 여드름... 남친 생겼나?'는 유치한 기사를 뱉어내기도 한다. 김연아가 유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 운동 선수들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시선이 그녀들을 탐색하고 있다. 심지어 모 배구선수단의 유니폼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답시고 엉덩이를 찍은 사진만 가득하게 편집한 뉴스기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한다.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면 꼭 이런다. 그들의 고객과 독자, 즉 그들에게 수익을 안겨

- 근육이 많으면 경종경종 징크스하게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로 근력 강화는 적당히 조절한다. 징크스를 위한 다리 강화는 있다 쳐도, 적어도 보디빌더같은 말 근육 강화는 아니지 싶다.
- 100kg에 수준 높고 낮은 듯.
- 100kg로 기자 좀 발로 툼는 듯.
- 100kg로 나랑 사귄다? 나의 100kg를 대접하자 이 나쁜아이들이!!!!!!!!!!!!



줄 대상이 남성 중심 사회의 남성적 시선을 가진 이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너무나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성적 대상화되고 있음은 그냥 기분나쁨으로 끝나는 걸까? 당사자들이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미지와의 갭이 어떤 현실적인 갈등을 겪도록 할지, 기대하지 않은 이미지에 대처가능한지 여부 등은 감안하지 않은 채, 수익을 위해 이미지를 쏟아내는 것은 말 그대로 폭력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의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 무책임한 일이기도 하다. 이미지가 팔리면 팔릴수록, 확대해석하면 할수록, 그 책임이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김연아가 웬지 의젓하면서 사려깊고 똑심있으면서 애교있는, 가냘프고 품에 속 들어오며 빵도 예쁘게 잘 먹는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그게 좋은 연애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조건과 일치한다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스포츠 선수에 성애화를 아끼지 않는 그것들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할까? '개들도 돈 벌었음 된 건가? 이미 연예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성애화와 대상화는 너무 당연해졌다'. 최근 이슈가 된 고 장자연 사건처럼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요구받지 않은 이상, 그녀들의 섹슈얼리티를 착취한다거나 그것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인식도 희미하다. 그렇다고 그 사회적인 성애화가 '연예인'이라는, '이미지를 상품화하여 파는 특수한 업종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기는 힘들다. 그것을 막는 방식은, 운동 종사자로서의 순수성을 요구해서 김연아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성적이 떨어지면 '이런 착하고 광고만 그렇게 찍어대더니 훈련은 안 했 나보지?' 라는 홍보기가 될 것이 뻔한-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인 그녀에게 덧입혀진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이미지, '순수하고 귀여운 여동생'의 이미지, 그녀가 가진 '건강하고 섹시함'의 이미지를 그대로 상품에 대입시켜 '잘 팔릴 때' 씹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 욕망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이미지를 생산해낸 기업과 언론의 재빠르고 무자비한 태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 그 중에서도 더 나쁜 방식이 있고, 덜 나쁜 방식이 있긴 하다.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요구로 스스로 성애화를 감화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중심적 인물이 '타자' 라니

그러면, 김연아라는 1등은 행복의 상징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에서 1등 해서?

1등 좋아하는, 1등 못 하면 애가 바짝바짝 타는 문화에서 1등이 낮으니, 다들 신이 나서 자진방아를 돌린다.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것 같고, 한국의 위상을 높인 것 같고, (신체조건이 안 좋은) 한국인도 해낸 것 같고, (시설도 안 좋는데 해낸) 한국이 세계를 호령한 것 같다. 이럴 때에 더 간지나는 건 '외신 보도'나 '외국인 전문가' 혹은 '외국 코치'들의 칭찬한 마디들을 이어붙이는 건데, 외국인이 보기에든 우수한 한국 민족이 몽글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글자색은 빨강에 기본 폰트는 20 포인트 정도의 흥분이랄까, '매배한 라이벌에 대한 관심'이 아닌 피겨에 대한 이야기는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세계를 아래에 깔았다'는 제국주의적 도취에 힘입어 자칭 1등 만들기 전문가인 '엘리트 대학' 고대까지 나섰다. '우리가 낳았다'고 먼저 외치면 입자일 줄 알고, 노골적으로 김연아를 독식하려다가, 너무 대놓고 말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여기서 짚어볼 것이 있다. 누가, 언제부터 '우리'인가? 여성에 대한 타자화는 스포츠에서도 예외가 없다. 일단 국가적 차원으로, 피겨와 같이 여성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스포츠에는 국민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축구나 야구에 대한 지원이 국가 주체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태권도와 택견과 같은 격투기들이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겠다며 끊임없이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것'이었던 것과 달리, 그 영역 밖의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은 실력이 뛰어나진 말건 관심 밖이었다. 그리고 김연아를 관리하는 '대한빙상연맹'은 제작년 쇼트트랙 파벌 논란에서 보았다시피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적인 집단으로 유명한데, 그간 최소한의 지원'을 베풀다가, '1등' 이후로부터 김연아를 이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고수하는 '여성에게는 감독·코치 등 선



- 학벌주의 사회의 어느 대학이라고 안 그랬을까? 스케이트 링크가 있었다면 연애도 김연아 유치에 할 안이 되었을 거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거다.
- 국가대표긴 하지만 1등은 아니던 시절, 연맹의 박한 지원으로 김연아는 이코노마제의 비행기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는 컨디션 유지와 몸통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하는 운동 선수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조치다.

수 이외의 진로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업계의 관행'이 1등을 해야만 하는 선수로서의 김연아'를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김연아를 관리하는 또다른 주체인 매니지먼트사는 김연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뉴스 기사화하고 수없이 많은 카메라를 끌고 다니도록 만들어 상품성을 높이며 끊이지 않는 광고 촬영을 권장하고 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것일까, 아닐까. 그녀는 화장품 광고를 찍는 것이 정말 즐거울까, 아닐까. 그녀가 광고 촬영을 하는 의도는 뭘까.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할까, 아닐까. 그녀는 자신이 빙상연맹과 국가를 포함한 '한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할까, 아닐까. 사람들은 '김연아가 광고로 몇억을 벌었다', '김연아가 기부를 많이 한다'만의 단편적 사실만을 이슈화하여 관심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연아와 자신이 동질감을 느낀다고, 같은 동포로서 자랑스러움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지금도 김연아라는 사람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

김연아 선수가 입국한다면, 휴식과 훈련 그리고 광고촬영으로 국내 일정을 보낸다는 무미건조한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눈물이 울컥 치민다. 그녀를 상품화하려는 기업의 욕망, 그녀가 한국을 대변한다고 믿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그 모든 것을 버무린 이미지를 팔아 끝까지 쥐어짜내려는 매니지먼트와 연맹의 욕망, 그 욕망과 욕망들이 맞물리니, 울컥하지 아니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글쓰느라 찾아 본 사진 이미지들이 머리에서 뱅글뱅글 맴돈다. 금메달을 걸고 차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며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애국가를 들던 그녀의 얼굴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파시스트 국가를 연상시킨다. 고대를 '방문'하여 총장과 악수를 하는 그녀의 사진은 마치 정치인 기사를 보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 지나간 화장품 광고의 어색한 미소가, 자꾸 가슴을 찌른다.

나는 피겨만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맨날 질질 울고 좋아라 하는데, 요즘엔 김연아의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에 피겨를 보기 쉽지가 않다. 그러니 사는 게 파국이다. 목구멍에 맥주나 들어부어야겠다.

by 자용, 감수 : 달리달

● 김연아는 광고 촬영을 한 수익의 많은 부분을 후배 스케이터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2009년 4월 9~16일.
이게 무슨 기간인지 아세요??!!
바로바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기간!!
가까운
신촌 아트레온에서 합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문구or구호)로 시작한 여성영화제가 올해 벌써 11회를 맞게 되었어요. 올해 영화제의 영화 프로그램은 최신작품, 쿼터, 10대여성, 여성노동, 나이들 등의 주제로 나뉘어져요.

남성중심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여성을 재단하는 수많은 영화들에 지치고 힘들죠. 당연하다는 듯이 재현되는 폭력적인 상황들에 숨이 막히죠. 무슨무슨 영화제에서 그걸 또 상을 주면서 칭찬하고, 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라면서 폭력을 미화하기도 하고.. 우웬! 여성영화제에서 영화를 볼 때만큼은 이런 것들로 불편해하지 않아도 돼요! 여성영화제에는 보면서 공감하게 되고, 생각하게 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주옥같은 영화들이 한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아아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진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이 좋은 영화들, 너무 몰아보고 싶지는 않은데.. 하루에 하나정도 보면 되려나? 하루에 하나만 봐도 며칠씩 계속 머릿속을 안 떠날텐데... 으흠 이 좋은 영화들 중에 대체 어떻게 고르라는 건지요. 아아 이 고통스럽고 황홀한 고민. 저도 올해 상영될 영화들이 다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답니다. 그저 시놉시스를 보고서 마음 쿵쾅쿵쾅 하고 있는 것이죠.

매년 꼭... 1학기 중간고사 1주일 전쯤 ~-~에 합니다. 너무 시험기간이 압박하구요? 무슨 말이에요, 시험기간 전이라서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공부하다가 지겹다! 싶으면 아트레온에 한 번 가보세요. 공부하는 안 되고, 짜증만 나왔던 머리에, 새로운 생각들이 새록새록 차게 될 거예요.



'베이비 포틀라'
4/10 금 저녁 8시

모험심 가득한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갖기로 하며 겪는 좌충우돌 사건들을 담은 펄크 다큐멘터리.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4/11 토 저녁 8시

지난 총선 때, 처음으로 종로구에 서 커밍아웃한 정치인이 후보로 출마했다는 거 알고는 계셨죠? 낙선이 예상되었던 무모한 도전물 외 꼭 해야만 했던 걸까요? 다큐멘터리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4/12 일 오후 5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후 여행을 떠나는 두 자매 서로 너무 다르게 살고 있었지만 여행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시놉시스를 즐기면 아뵐고요, 공효진하고 신민아가 주연이래요!

〈일상, 울림〉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어때요!

선착순 10명은 공짜로 볼 수 있어요!! 혹시 선착순 10명 안에 못 들더라도 같이 보러 가요~ 돈 주고도 못 보는 영화들이예요!

왼쪽의 3편의 영화들 중 (하나라도) 함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woolim@yonsei.ac.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직접 총여학생회실로 찾아와주셔도 좋아요~ 직접 여성영화제 사이트(<http://www.wffis.or.kr>)에 방문해서 상영시간표와 영화들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럼, 영화관 앞에서 만나요~!

부지런한 총여학생회 :))

안녕하세요!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올림>입니다! 반가워요.
다들 새학기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신지요?
저희 총여학생회는
하고 싶은 사업이 너무 많아,
이것저것 바쁘게 지냈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반 성폭력

-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여연자연)에 서는 겨울방학 내내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다양한 많은 단위에서 함께 참여해 OT/세터를 비롯한 학생자치활동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곳에서 성평등자치규약 자료집을 만들었고요, 반성폭력 교양 동영상과 자치규약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부했어요.
- 2월 4일에는 <성평등한 자치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성취회/성폭력 상담실과 함께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자치활동을 하면서 생긴 고민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을 나눴습니다.

여성주의적으로 자연과 관계 맺기

- 생태적인 실천으로 <일상, 올림>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면서 자연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생수사업에 반대하는 실천으로 여러 단과대에 탐방려 공동구매를 제안했고, 연세생물학동조합에서 문과대, 사과대, 이과대, 법대, 공대와 함께 탐방려를 공동구매했습니다.
- 에코페미니즘 팀이 꾸려졌습니대 여성주의적으로 자연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 고민해오던 사람들이 모여 세미나도 진행하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에코페미니즘적인 실천들을 나누기도 하면서 매우 모이고 있습니다.

여학생, 교육권을 이야기하다!

- 세터 때 나눠주고, 각 단과대에 비치해 둘 생리대를 배부했어요. 여학생들의 월경에 관련한 경험들은 부끄러운 것으로 은폐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요.
- 중앙도서관의 엘리베이터는 벽면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학생들이 얇은 치마를 입고 뒀을 경우에 원치 않게 허반신이 노출될 위험에 놓이게 되어 여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학생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엘리베이터에 <일상, 올림>은 투명엘리베이터를 불투명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문 제제가 발아들어져 벽면이 불투명처리되었습니다!
- 학생들의 교육권을 고민하는 연세교육공동행동 <이만 마일-이만연세인 마침내 일어서다>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을 힘차게 이야기하다

-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노동문제, 여성 노동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올해 101회를 맞는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3월 6일 중도 앞 민주광장에서 역점활동 기념공과 함께 여성의 노동에 관한 이야기, 밥값에 관한 이야기, 장애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읽을거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소통으로 피어나는 여성주의

- 겨울방학 내내 세 개의 팀을 꾸려 여성주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에코페미니즘, 여성노동권, 학내에서 여학생으로 살기,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한 고민 등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어요.
- 여학생 수첩이 나왔어요! 여학생 수첩에는 학내 여휴 지도, 여성의 몸에 관한 이야기, 월경주기 달력 등 여학생의 경험과 이야기가 담겨있답니다.
-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자료집 <아름다운 봄 아세요?>가 발간되었습니다! 마냥 아름다운 봄이 아닌 봄에, 다시금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 안에는 기존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대안적인 활동을 하는 공동체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더라고요.
- <나도 몰래 언어가 꿈틀꿈틀 나오는 여성주의 세미나>, 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여성중심주의, 가족과 살기, 여성노동에 관한 고민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니, 같이 와서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 홈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web.yonsei.ac.kr/yselem 이랍니다! 이곳에서는 <일상, 올림>의 근황, 활동 소개, 페미니즘 도서 정보 등이 담겨 있으니, 많이 둘러보세요^^

소모임 네트워크와 함께 힘 받는 일상!

- 여성주의소모임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주의 소모임들이 모여서 함께 홍보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여성주의 소모임들이 한 곳에 모여 고민을 나누면서 함께 만들어나가는 자리가 되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주의 소모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소모임들이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총여학생회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살펴보았어요.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올림>은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여학생 교육권, 반성폭력, 여성 노동, 에코페미니즘, 장애 여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거예요! 총여학생회의 활동에 공감하시는 분, 지지하시는 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총여실로 놀러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강조하지만 학생회관3층 왼쪽 끝 분홍색 문이 지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봐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모임, 여학생들의 모임,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모임 등등 여성과 관련된 여러 모임들이 겨울방학때부터 모여 북작북작 각자 모임을 소개하는 책자글을 만들었다. 여성주의/여학생 모임은 사실상 학내에서 살아남기 버거운 실정에서 이렇게 2주에 한번꼴로 만나며 책자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작은(?) 모임으로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네트워크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속한 포큐파인 구성원들은 포큐파인 외에도 다른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멀티플레이어(?)들이었기에 네트워크 책자글을 구성하는 것은 즐거웠지만 한편으론 가중되는 일의 무게이기도 하였다. 곧 있으면 나오는 소모임책자글을 생각해 보면 정말 뿌듯해지지만 책자 외에 내가 소모임네트워크를 통해 무엇을 그려나갈 수 있는지 어떤것을 얻어갈 수 있었는지(있을)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숨을 돌리면서 생각해 본다.

눈에 보이는 뿌듯한 결과물인 네트워크 책자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나는' 어떤식으로 소모임 네트워크를 바라보고 있는가는 이렇게 글을 써볼 기회가 없었다면 찬찬히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 같다. 처음에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모인 소모임이니 만큼 같이 할 수 있는 것

소모임 네트워크를 그려가면서...



김민정

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하지만 대표자들끼리도 방학동안 겨우겨우 정기적으로 모이는 상황에서 어떠한 거창한(?)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큰 힘의 소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여성의 날을 맞아 유인물 같이 만들기, 자보전 같이 하기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막상 해보니 타이밍도 잘 맞아 떨어졌다. 또 글하나 쓰는 것도 함께 논의하고 검토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래서야 "아! 난 어쩌면 잘 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다른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소모임 네트워크에서 내가 발견한 소소한 기쁨들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 시점의 나에게 있어 소모임 네트워크의 모습인 것 같다. 말로만 전해 들었던 다른 소모임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좋았는데, 나에게 있어 엘리스가 그랬다. 항상 소식지처럼 보아와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문과대)에 있구나" 하고만 막연한 동경(?)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 무슨 활동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새로운 것 없는 이야기라도 새롭게 만난 사람과 나누면 새로운 의미로 반짝거리는 느낌. 만화매체를 하는 포큐파인 입장에서 '운동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었는데 농담의 파니씨가 흔쾌히 게스트 만화를 그려주어서 굉장히 기뻐했다. 단순히 원하던 이야기의 만화를 얻어서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에게 나의 활동이 지지받는 듯한 기분에 마음이 풍족해지는 느낌이었다.

이런 소소한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한번이라도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으로 부터 시작할 수 있기에 이번 겨울방학동안의 만남은 선물이었던지도, '생활나누기'라고 각 단위들이 모이면 각자 그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조잘조잘 털어놓는 자리는 그 자체만으로 힘을 받는 자리였던 것 같다. 그냥 안부라도 묻고 각자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간의 공간. 이런 작은 것에 서부터 불안하던 마음이 잠재워지고 지지받는 듯한 충족감을 얻어가는 것이 아닐까? 어쩌보면 특색도 다르고 하나의 활동을 하기에 그 관계망은 느슨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느슨한 고리고리 사이에서 간간이 놓여있는 작은 별사탕 하나씩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참 좋다.

by 로그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우리는 참 많이 사고, 먹고, 버립니다. MT에 가서 먹는 삼겹살에는 공장식 농장에서 길러지는 돼지와 그에게서 이윤을 뽑아내는 산업자본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내 키만큼 쌓여버리는 일회용 종이컵에는 펄프를 만들기 위해 잘려나가는 나무가 보이고, 나무가 사라져 건조해지는 우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농민도 보입니다. 2007년 대동제 3일간, 우리들이 주점에서 사용한 1.5톤 트럭 4대 분량의 일회용품은 아직 썩지도 않고 있을 거예요.

에코페미니즘적으로 학내를 바라본다는 것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서로를 착취하지 않는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만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혹은 돈 많은 이들만의 건강을 위한 웰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배어낼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인간중심성과 자연의 파괴로 인한 고통을 여성, 가난한 이, 제3세계 농민과 같은 약자에게 감당하도록 만드는 남성중심성의 공모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에코페미니즘 운동팀에 함께 해요!



이러한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3월엔 에코페미니즘 운동팀을 꾸렸어요. 에코페미니즘 운동팀의 모임은 생활나누기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그라지에 가면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로 커피를 마신다는 이야기, 생태 공동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지렁이를 키우고 있더라는 이야기, 나도 텃밭 가꾸고 싶다는 이야기…….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진솔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태적 감수성을 나누고 즐거운 공부를 하면서 팀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풍풍 솟아오릅니다.

“학생회관 옥상에서 텃밭가꾸기를 하면 어떨까?”

“생태적인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서, 자취생들과 공유해보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대안생리대 만들기 하면 재밌겠다.”

요즘은 대동제를 생태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한 일을 꾸미고 있어요. 에코페미니즘 운동팀에서 장터를 열어서, 싱그러운 유기농 딸기를 팔거나 로컬푸드와 관련한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열매선 공정무역 커피도 팔구요. 낮에는 둘러앉아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것도 상상해보구요. 다른 장터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통의 설치나 로컬푸드 공동구매를 제안하고 추진해보려고 해요. 별 고민 없이 쓰레기만 무한정 뱉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과 행복하게 관계 맺는 축제! 상상만 해도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내가 사는 학교,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에코페미니즘 운동팀에 함께 해요~



